

## 변모하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 保護에서 自由化로 -

**發** 電사업을 포함한 일본의 에너지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10년까지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이 개정되고 정부 보호하에 있던 에너지산업도 자유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사정이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유경쟁과 안정공급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 ◆ 규제완화 : 전기요금 인하에 초점

21세기를 향한 에너지정책의 지침이 될 전기사업 심의회 수급부회, 전력기본문제 검토 소위원회, 전력보안문제 검토 소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지난 6월 23일까지 제출되었다.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문제는 지역독점성이 강한 전력사업이 ① 경쟁원리 도입과, ② 코스트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보안규제 재검토 등을 통하여 외국에 비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전력기본문제 검토 소위원회 보고에서는 철강, 화학업체 등의 자가발전과 자치단체가 쓰레기 소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자유롭게 도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전력업체도 「이것을 탄력삼아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한다」(전기사업연합회 회장)라고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전력보안문제검토 소위원회의 보고는 점검기간의 단축이라든지 공사계획 검사의 대폭 간소화등을 제안하고 전력회사로 하여금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전력회사의 전력구입요금과 참가 희망사업자의 희망가격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공정보수와 원가를 합산하는 현행 요금 시스템(총괄원가

주의)자체를 재평가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요금인하는 곤란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솔린 등 석유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 조치법을 95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상사도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석유제품 수급곤란이 계속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화 후에도 수입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한편 가솔린 스탠드의 대형, 집약화를 중심으로 한 유통경로의 합리화로 가솔린이 1리터당 1원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에너지 수급전망과 자유화의 요점

|      |  |
|------|--|
| 수요전망 | 원유환산 3.6억kl(92년도)→4.23억kl(2010년도)  |
| 공급전망 | 석유 3.15억kl(58.2%)→3.03억kl(47.7%)<br>원자력발전 2230억kWh(10.0%)→4800억kWh(16.9%)<br>신에너지 670만kl(1.2%)→1910만kl(3.0%)<br>(괄호내는 1차 에너지 공급분중 점유율) |
| 전 력  | 96년부터 자가발전설비 소유 기업, 자치단체의 전력판매 자유화, 발전공사 계획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 가 스  | 95년도부터 산업용 대수용가의 요금 자유화  |
| 석 유  | 96년도부터 가솔린등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

◆ 수급전망 : “脫石油” 가속화

가정생활이 더욱 電化되고 수송용 연료소비가 증가되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종합에너지 조사회 수급부회 보고가 제안하고 있는 脫石油 가속화 정책이다.

세계적인 에너지절약의 추진과 더불어 북해유전, 텡기스(Tengiz)유전 등 새로운 유전개발로 원유가격이 배럴당 14-15달러 정도의 제1차 석유 위기 당시 가격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의 급속한 발전도 석유가격 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심의회에서 수입자유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석유업계는 「국내의 원유정제능력이 감소하여 안정공급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지역 에너지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원유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수입 루트확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한다.

◆ 플루토늄 이용 : 「로카쇼무라 再處理공장」 건설 연기

종합에너지조사회 원자력부회 보고는 플루토늄 이용 계획 추진을 늦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2010년경 운전개시를 목표로 추진하여 오던 사용후핵연료 민간 제2재처리공장 건설을 연기하여 2010년에 다시 운전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력업계가 건설할 예정인 고속증식로 실증로 추진일정도 당초목표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로 변경하였다.

그결과 원자력발전은 당분간 경수로가 주체가 될 것이지만 깨끗하고 값싸다고 안이하게 해석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1992년도 일본의 원자력 발전단가는 kwh당 9엔으로 89년도와 변함이 없으나 석유는 11엔에서 10엔, LNG는 10엔에서 9엔으로 낮아져 원자력발전과의 격차가 거의 없게되어, 원자력발전의 코스트면에서의 우위성을 잃어가고 있다. ㉔

